

제약사업 성장 가능성 “거의 없다”

의약시장 잠재성 부진 10%는 꿈 ... 합작·M&A 통한 매출확대 불가피

거대 제약기업들은 최근의 위험기피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위기를 맞고 있어 의약품 생산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기적 성장 또는 M&A를 통해 R&D 투자 및 판매활동을 확대해 왔으나 투자수익의 감소로 성장 전망 및 수익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도적인 16개 제약기업들의 평균 매출신장률은 5.2%에 불과했고 기존에 판매 및 공급된 의약품의 잠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 10%를 넘는 제약기업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라이선싱, 합작기업 및 M&A와 같은 외부적인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Johnson & Johnson은 2003년 바이오기술 기업인 Scios를 24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다. 주요 제품은 Scios가 2001년 시판한 심부전증 치료제 Natrecor(Nesiritide) 및 Phase II 단계에 있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 SCIO-469이다.

치료약 매출액 전망 비교(2002-2007)

(단위: 100만달러, %)

회사명	치료분야	2002	2004	2007	증감률*
AstraZeneca	호흡질환	1,806	2,017	2,222	4.2
GlaxoSmithKline		5,942	6,249	6,630	2.2
AstraZeneca	심혈질환	3,637	4,356	6434	12.1
Bristol-Myers Squibb		5,417	5,839	5,698	1.0
Eli Lilly		600	613	630	1.0
Wyeth		712	663	336	13.9
GlaxoSmithKline		992	1,484	2,075	15.9
AstraZeneca	CNS	2,396	2,880	3,144	5.6
Eli Lilly		4,474	5,139	6,192	6.7
Wyeth		2,677	3,504	3,867	7.6
GlaxoSmithKline		6,413	6,923	5,303	3.7
AstraZeneca	암	2,402	2,948	3,629	8.6
Bristol-Myers Squibb		3,580	3,634	3,967	2.1
Eli Lilly		827	1,334	2,024	19.6
GlaxoSmithKline		1,300	1,532	1,109	3.1

* 2002-2007년 연평균

자료) Datamonitor

Scios는 최초의 인체용 rhBNP(B타입 Natriuretic Peptide)인 Natrecor의 2003년 미국 매출이 1억8000만-1억8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GlaxoSmithKline이 Natrecor의 개발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Natrecor의 미국 매출은 2006년 3억-6억달러, SCIO-469는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Journal 2003/11/11>